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저는 Malabon City Potrero Victoneta Avenue에 위치한 라살 아라네타 대학의 라살리안 랭귀지 센터(LLC)에 파견되었습니다. 주말같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은 우버 택시를 이용하여 최소 20분에서 최대 1시간이면 다양한 필리핀의 관광명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된 지역은 적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	LLC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기 전 모든 학생들은 LLC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치러야 했습니다.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반이 나뉘게 됩니다. 즉, 레벨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속하는 대그룹이 결정됩니다. LLC의 클래스는 대그룹 수업(토익스피킹, 토익리스닝, 멀티미디어), 2번의 소그룹 수업과 3번의 맨투맨 수업(스피킹1&2, Writing)으로 하루에 총 8개의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시간은 총 50분이며 쉬는시간은 5분과 10분입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총 11교시가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공강 시간은 점심시간 50분과 공강 2시간입니다. 수업 중 주어지는 과제는 어렵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경써야하는 과제는 단어외우기와 에세이작성입니다. 매주 보는 Weekly Test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었지만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Activity	저는 따로 Activity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도로 섬 여행에는 참여하였습니다. 주관되는 액티비티는 민도로 섬 여행, 따가이따이 섬 당일 여행, 팍상한 폭포 관광입니다. 팍상한 폭포 관광과 따가이따이 섬 당일 여행은 주말에 주관되었습니다. 저희학교는 학교에서 민도로 섬 여행비용을 지원해주어 자신이 민도로 섬에서 쓸 돈만 챙겨서 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민도로 섬 화이트비치에서 즐길 썸머 액티비티를 이용하려면 돈을 넉넉히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 나머지 2개의 액티비티는 참여하지 않고 주말에 가까운 유명한 관광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엄청 덥지도, 엄청 습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날씨였습니다. 12월, 1월, 2월 이 필리핀에서는 건기이기 때문에 지내기에 매우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는 동안 비가 3~4번 정도 왔었습니다.
안전	학교에 들어갈 때나 어느 건물을 들어갈 때든 경찰분들이 계셔서 처음엔 무서웠지만 필리핀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고 지내다보니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 사전교육을 받을 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소매치기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소지품과 귀중품등을 잘 챙기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2인실 치고 매우 좁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내다 보면 적응되는 크기였습니다. 침대 시트와 베개는 매주 주말마다 청소하시는 분께서 갈아주셔서 깔끔했고 매일매일 방 청소를 해주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식사는 한식 위주로 나왔지만 가끔 필리핀 음식이 반찬으로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특별한 반찬과 국을 제외하고는 밥과 반찬은 자율배식이었습니다.
교통	저희 기숙사는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5분도 안 되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의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프니, 트라이시클, 택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 저희는 주로 UBER앱이나 GRAB앱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용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주 애용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약 94,000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품(옷, 우산, 휴지, 간단한 먹거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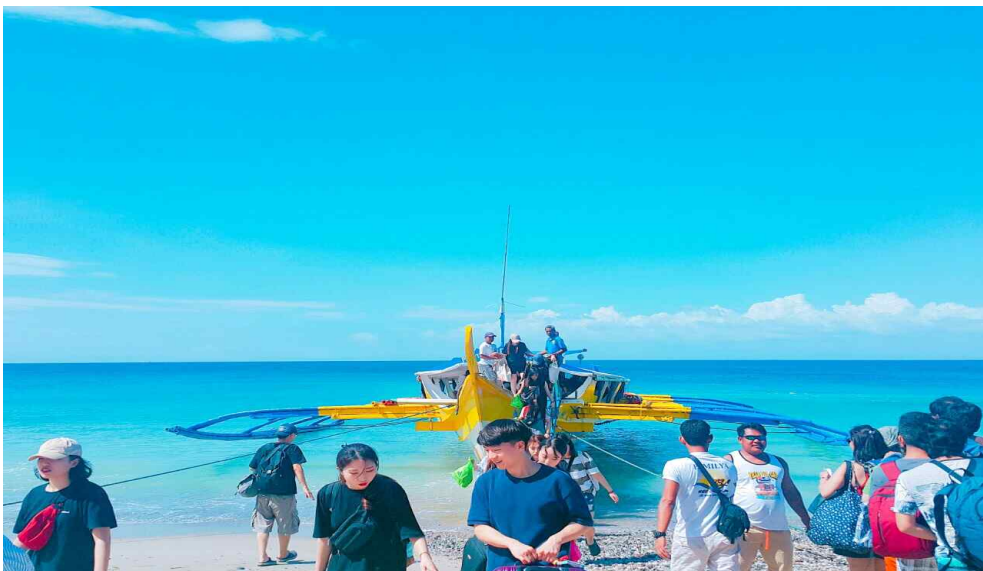
쇼핑비	약 376,000	기념품 구입비, 식사
합계	47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리핀 인터넷 환경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필리핀 유심으로 필리핀 번호를 따로 개통하였고 필리핀에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매우 많다면 데이터의 속도는 매우 느려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비용에 여유가 있었다면 포켓 와이파이를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을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교와 기숙사 에어컨 바람이 매우 세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4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보니 4주는 매우 적당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학교에서 말고도,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영어를 쓰다보니 영어에 대한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 다녀온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꼭 필리핀 단기연수에 가는 걸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의 낯선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2016.12.30.민도로섬에 도착한 날입니다. 민도로 섬의 화이트 비치는 모두가 만족하였습니다.



2017.01.06.

학교 내에서 진행된 마닐라 투어입니다. 자신의 대그룹 사람들과 투어를 함께하는데, 대그룹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7.01.06.

마닐라 투어 중 대그룹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LLC마지막 수업 날, 멀티미디어 수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과 대그룹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LLC마지막 수업 날, 토익스피킹 수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과 대그룹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2017.01.20.

LLC 수업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순천향 대학교 학생들 모두가 수료증을 들고 필리핀에서의 마지막을 기념하였습니다.